한국학 제 44권 제2호 통권 163호 197-231쪽
doi: 10.25024/ksq.44.2.202106.197

사유력 강화의 방법론, 불언지교

박혜순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연구원, 중국철학 전공
natureislove@hanmail.net

Ⅰ. 머리말
Ⅱ. 교육의 지형 변화
Ⅲ. 언지교와 불언지교
Ⅳ. 대안적 제언: 언지교와 불언지교의 융합
Ⅴ. 맺음말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07330).
이 논문은 2020년 11월 21일(토) 국립안동대학교부설퇴계학연구소에서 주최한 “제2회 한중서원·유교문화 포럼, 한중 서원의 지식과 정치”에서 발표한 글을 대폭 수정한 것임.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Ⅰ. 머리말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은 필연적일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은 4차 문화혁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대변혁, 예단할 수 없는 많은 변화와 윤리적 논란들이 제기될 것이다. '4차 산업시대를 어떻게 준비할지', '미래의 주역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진다. 미래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 생각, 삶의 태도, 교육 등 다방면에서의 변화가 필요하고, 깊이 있는 사유와 통찰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안목,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요청되지만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이런 요청에 부응하기에 충분치 않다.

앞으로는 인간이 해오던 많은 부분이 AI로 대체될 것이다. 특히 지식의 '습득', '축적', '저장', '전달', '배포'는 모두 AI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AI는 인간 지능의 극대화다.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능이라는 독특한 능력 덕분이었다. 그런데 AI로 인해 인간이 존엄성과 인간다움을 잃고 AI의 통제 하에 기술의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새로운 행동법칙이 필요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변화가 시급하다. 이에 인재를 키우는 기반 사유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인재를 키우는 것은 교육의 몫이지만 그 기반 사유를 검토하는 것은 철학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우리가 서있는 현 좌표부터 살펴보자면, 인간은 AI와 자연의 중간적 존재자다. 자연, 인간, AI는 각기 다른 법칙에 따라 존재한다. 자연의 법칙은 무위, AI의 작동법칙은 인위다. 인간은 중간적 존재자로 인위와 무위의 법칙 양면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 인위의 법칙은 알아야 하고, 무위의

법칙은 지켜야 한다. 무위의 법칙은 불언지교(不言之敎)를 통해, 인위의 법칙은 언지교(言之敎)[1]를 통해 전승된다. 불언지교는 말하지 않는 가르침이므로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배워내야만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지점에 사유력을 강화하고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아시아 교육 전통에서는 언지교가 지배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불언지교는 상대적으로 소홀이 여겨졌고 깊이 연구되지도 발전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지식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사유의 폭과 깊이가 축소돼 사유력이 감퇴되는 결과를 낳았고, 자연성 유지·보전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도 그만큼 손실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서양철학전통에서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유하는 것이다. 사유력은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점점 퇴화되고 있는 추세다. 현대인은 전화번호나 삶에 필요한 소소한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계에 의존하고 간단한 계산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AI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과 반비례해서 인간의 사유력은 약화된다.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사유력의 약화는 인간이 갖춰야 할 도덕성의 약화로 이어진다. '악의 평범성'은 사유하지 않음에서 시작된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 아이히만은 출세와 야망에 눈이 어두워 도덕성을 망각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말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오직 명령에만 복종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에 대해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채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적 존재로 전락했다. 그 결과 무고한 600만 유대인의 목숨을 앗아갔고 자신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에게서는 인간이 인간

---

1 이 글에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언지교'는 최진석의 표현을 차용한 것이다. 최진석은 유가의 가르침을 도가의 '불언지교'와 대비되는 '언지교'라는 개념으로 규정함으로써 유가와 도가 교육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최진석,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소나무, 2001), 제2장 참조.

일 수 있는 도덕적 특성이 발견되지 않고 타인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인다. 한나 아렌트는 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사유하지 않음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2] 사유의 무능은 결국 인간됨의 자격상실로 이어진다. 환원하면 사유력 강화는 인간됨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사유력 강화는 AI로 대체될 수 없는 창조적 지식생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 사유력이 곧 창조의 원천이라는 것은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창조적 지식들 대부분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낸 산물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미래 대응력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사유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위기와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사유력 강화의 방법론으로 삼기에 불언지교가 적절한지 그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려 한다.

Ⅱ. 교육의 지형 변화

칼 야스퍼스는『역사의 기원과 목표』에서 역사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분류한다. 제1기는 선사시대로 인간이 언어 도구 및 불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 프로메테우스 시기이고, 제2기는 고대 고도문화의 등장 시기이며, 제3기는 차축시대의 시작으로 정신적으로 참다운 사람에 대한 탐구가 시작된 시기이고, 제4기는 과학적·기술적 시대의 시작으로 인간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며, 이때 인간은 '제2의 기축시대'를 연다.[3] 이와 관련해서

2 한나 아렌트 저, 김선욱 역,『예루살렘의 아이히만』(한길사, 2017), 제3장 참조.
3 Karl Jaspers 저, 백승균 역,『역사의 기원과 목표』(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6),

미래학자 다니엘 벨(Daniel Bell)은 『탈산업시대의 도래』에서 산업혁명 이후 200여년을 '제2의 기축시대'라고 명명했다.[4] 내가 보기에 지난 200여년은 그 서막에 지나지 않았고, 야스퍼스와 다니엘 벨이 주장한 제2의 기축시대는 바로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그 문턱을 넘어섰다. 생산방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생각을 바꾸고, 삶의 양식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거기서 산출되는 지식의 형태나 질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류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에서 미래를 열어갈 젊은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창의성,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교육이다. 빅토르 위고에 따르면 "지식은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다.[5] 4차 산업시대에는 AI가 인간보다 정확한 판단력과 실행력 그리고 뛰어난 문제해결력으로 모든 문제를 도맡아 처리하게 될 것이다.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문제 해결형'이 아닌 '문제 제기형'이다.[6] 지식을 융합하고 연결할 수 있는 교육과 빅데이터에 저장된 방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할 줄 알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전망할 줄 아는 창의성과 사유력이 요구된다. 칼 세이건은 "오랜 인류의 전통을 볼 때 변화에 가장 익숙한 세대는 젊은이들"이라고 한다.[7] 젊은이들은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면에서 기성세대를 능가하는 탁월성이 있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 교육에는 변화를 예민하게 읽을 수 있는 촉각이 필요하다.

시대적 변화와 관련해서 최근 NMC와 영국 Open University에 의해서 제기된 교육지형변화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축약된다. 첫째 온라인과 오프라

55-56쪽.

4 Daniel Bell 저, 김원동·박형신 역, 『탈산업시대의 도래(*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아카넷, 2006).

5 빅토르 위고 저, 백연주 역, 『웃는 남자』(더클래식, 2018), 81쪽.

6 EBS 다큐프라임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대혁명, 평가의 틀을 깨라〉(2017) 참조.

7 Carl Sagan 저, 김한영 역, 『에필로그(*Billions and Billions*)』(사이언스북스, 2004), 121쪽.

인의 학습 경험융합으로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학습 경험을 토대로 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고, 둘째 지식을 생산하고 창조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학습 환경을 전환하는 것이며, 셋째 별도의 시험이나 평가 없이 학습 성과를 진단하는 스텔스 평가(stealth assessment)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8] 나는 이 가운데 스텔스 평가방식에 주목한다. 시험이나 평가에 의존하는 교육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사고의 유연성을 해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학습 분위기로 전환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스텔스 방식은 고도의 종합적 사고력 함양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교수가 평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창의성은 가르치거나 배워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부딪쳐 시도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얻어내는 것이다. 창의력을 계발하고 키워가는 과정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성을 자유롭게 발휘하지 못하게 작동할 우려가 있다. 4차 산업시대가 고도의 사유능력을 겸비한 창조적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평가는 지양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이상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불언지교라고 생각한다.

요즘 선진국의 앞서가는 교육은 놀랍게도 불언지교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기존의 지식을 전달하지 않고 학생이 생각한 방식대로 시도해봄으로써 스스로 배워내게 한다. 미국 올린 공대(Olin College of Engineering)의 프로젝트 중심 수업은 교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뿐이고 학생이 프로젝트를

---

8 김진숙,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역할」, 《에듀인뉴스》, 2016년 8월 9일자 참조. 최근 교육선진국에서는 "본인이 모르게 상대방을 평가하는 비밀평가"인 '스텔스 평가' 방식 도입으로 이런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있다. 이강봉, 「게임으로 학생 능력 평가한다: 미 교육계, 시험방식 개선 위해 '스텔스 평가' 실험」, 《ScienceTimes》, 2011년 2월 9일자.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새 시대에 걸맞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프랑스의 정보기술 교육기관인 에꼴(Ecole) 42와 국립영화학교 페미스(La Femis)의 수업도 언지교의 방식이 아닌 불언지교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두 학교는 교수도 없고, 진도계획도 없고, 정해진 수업 방식도 없이 운영된다. 그 이유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살아갈 미래의 주요 역량은 창의성인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기존의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오히려 창조를 가로막는 행위라는 생각에서다. 교육의 이런 변화들은 불언지교가 지향하는 무위의 교육과 일치한다. 무위교육의 효과는 놀랍다. "지켜보되 관여하지 않고 사랑하되 간섭하지 않고 보여주되 가르치지 않고 함께하되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고, 자신에게 내재된 힘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9]

교육선진국들의 변화는 불언지교가 창의적 인재양성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같다. 미래교육이 중시하는 창의성, 예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공감력, 협업, 비판적 사고, 의사결정 능력은 인간 본연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다.[10] 고유성이란 보편화될 수 없는 독특한 성질이다. 자동화될 수 없고 AI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만의 특별한 능력이다. 이 특별함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바로 불언지교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로써 나는 4차 산업시대가 요구하는 사유력 강화와 창의성 계발에 불언지교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9 원용준, 「도가의 교육론과 그 윤리교육적 의의」, 『동양문화연구』 14, 동양문화연구원(2013) 참고.

10 EBS 다큐프라임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대혁명, 대학의 변신〉(2017) 참조.

Ⅲ. 언지교와 불언지교

동아시아의 인문교육은 크게 언지교와 불언지교 두 가지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제자백가는 언지교의 방식을, 도가는 불언지교의 방식을 채택한다. 언지교는 말로 가르치고, 불언지교는 말로 가르치지 않는다. 언지교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전통과 성인의 행동방식을 본떠 인간사회의 운영과 가치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식 즉 가도(可道)와 인도(人道)를 가르치는 것이고, 불언지교는 자연의 운행 법칙에서 연역한 천도(天道)와 상도(常道)를 깨닫는 것이다.[11] 언지교의 내용은 보편적이므로 자동화할 수 있고, 불언지교의 내용은 보편적이지 않아 자동화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자동화된 지식은 AI의 관리가 가능하고 자동화되지 않는 지식은 AI가 관리할 수 없다. 언지교가 전통적인 지식 전수에 집중하는 반면, 불언지교는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터득하게끔 만드는 방식이다. 스스로 터득하는 불언지교는 AI가 넘볼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불언지교가 도가의 교육이론이긴 하지만 모든 교육에는 이미 불언지교의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1. 언지교의 덕

유가 교육의 실질적인 목표는 유덕자 양성에 있다. 덕이 평천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백성을 얻어야 나라를 얻고, 백성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먼저 덕을

11 최진석(2001), 앞의 책, 1장 참조.

신중히 해야 한다. 덕이 있으면 이에 사람이 모여들고, 사람이 있으면 이에 토지가 생기고, 토지가 있으면 이에 재물이 생긴다. 재물이 있으면 이에 쓸모가 있다(『대학장구』 전10장)."[12] 덕이 있으면 사람, 토지, 재물을 모두 얻을 수 있지만 유가가 중시하는 것은 이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품성이다. 그래서 군자에게 요구되는 기본 덕목이 덕본재말의 정신인 것이다. 덕본재말의 정신으로 일을 처리하면 백성들이 모여들고, 재물을 끌어 모으기에만 급급하면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13]

덕본재말의 표본은 혈구지도다. 추기급인의 정신이 정치에 반영된 혈구지도는 백성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하나의 기준, 잣대, 위정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이며, 백성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위정자가 노인을 노인으로 공경하면 백성들 사이에서 효도가 일어나고, 위에서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하면 백성들 사이에서 공손함이 일어나며, 위에서 외로운 이를 불쌍히 여겨 돌보면 백성들이 배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군자는 혈구지도를 가지고 있다."[14] 덕 있는 통치자라면 백성들이 절로 배우고 따르므로 평천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통치자는 백성의 마음을 살 수 없으므로 덕치가 아니고 무력으로 통치하게 된다.

내가 보기에 덕치의 진정한 실현은 언지교 속에 내재된 불언지교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힘은 혈구지도라는 기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통치자의 행동과 처신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덕을 갖춘 위정자는 효제의 중요성과

---

12 『大學章句』 傳10. "道得衆則得國, 失衆則失國. 是故君子先愼乎德. 有德此有人, 有人此有土, 有土此有財, 有財此有用."

13 『大學章句』 傳10. "德者本也, 財者末也. 外本內末, 爭民施奪. 是故財聚則民散, 財散則民聚" 참조.

14 『大學章句』 傳10. "所謂平天下, 在治其國者, 上老老而民興孝, 上長長而民興弟, 上恤孤而民不倍, 是以君子有絜矩之道也."

불쌍한 이웃을 돌보고 돕는 행위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백성들을 따르게 한다. 이런 실천력은 혈구지도라는 기준이 아니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다. 혈구지도라는 기준은 언지교의 특성이지만 그것을 실천해보임으로써 백성들이 보고 배우게 하는 것은 불언지교의 특성인 셈이다. 그러므로 『대학』이 지향하는 평천하의 이상은 언지교와 불언지교의 융합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배워내지 않는 한 어떤 좋은 것도 말로서는 완벽하게 가르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바로 언지교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다.

유가에서 요순은 덕의 기준이다. 요순은 덕치로 태평성대를 이룬 성인이기 때문이다. 주공(周公)은 요순의 행적을 제도적으로 정비해서 문명화된 국가체계를 갖추었고, 공자는 주공이 설계한 문명의 핵심이 덕임을 간파했다. 덕의 유래는 천(天)에 있다. "공자가 주공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천명이 곧 문덕(文德)에 있다는 인문학적인 정신이다."[15] 『상서·소고』편에 따르면 은나라의 명이 다하고 천명이 주나라로 옮겨가자[16] 주나라는 '천명불이(天命不易)' 관념을 '천명미상(天命靡常)'으로 바꿨다. 천명이 언제라도 덕 있는 자에게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위정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에 덕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날마다 성찰하게 한 것이다. 덕을 중시하는 유가의 인문교육이 동아시아 문명권에 끼친 지대한 영향력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칼 포퍼(Karl Raimund Popper)는 "문명이 살아남으려면 위대한 인물에 맹종하는 습관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대한 인물의 위대성이

---

15 박혜순, 『도가의 관점에서 본 물에 관한 생태 철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2), 각주 386.

16 『尙書·召誥』. "皇天上帝, 改厥元子, 玆大國殷之命. 惟王受命, 無疆惟休, 亦無疆惟恤. 嗚呼, 曷其奈何弗敬. [蔡沉注]: 商受嗣天位, 爲元子矣. 元子不可改而天改之. 大國未易亡而天亡之. 皇天上帝, 其命之不可恃如此" 참조.

위대한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판적 성찰이 따르지 않는 교육은 "지배계급의 도구로, 지배의 안정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 위대한 사상가들이 제시하는 정치철학의 방향은 과거 지향적이고, 그들이 재구성하고 있는 것 또한 과거의 국가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17] 과거를 지향하는 사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지배층이 교육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지배력을 확장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 덕은 더 이상 덕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한다. AI가 문명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천명에 기초한 덕 관념이 4차 산업시대에도 여전히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동양이 도덕(道德)의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서양은 능력, 탁월성 구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덕 개념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인간사회에서 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개념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인간사회에서 필요불가결한 덕을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가르칠 수 있다면 4차 산업시대에도 덕 교육이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가르칠 수 없다면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 또 인간의 역량을 능가하는 AI의 탁월성을 덕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면상 후자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 미루고 덕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1) 덕은 가르칠 수 있는가

플라톤에 따르면 "덕 혹은 인간으로서의 탁월함이 잘 교육되고 있다는 믿음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18] '덕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 프로타고라스는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입장이고, 소크라테스

---

17 Karl Raimund Popper 저, 이한구 역, 『열린사회와 그 적들 1(*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민음사, 2013), 1판 서문, 66쪽, 86쪽.

18 Platon 저, 강성훈 역, 『프로타고라스(*Protagoras*)』(이제이북스, 2011), 19쪽.

는 가르쳐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아테네의 형벌제도를 논거로 삼아, 덕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라면 형벌제도는 성립될 수 없을 것인데, 사람들은 모두 자식들에게 덕을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고 논박한다. "아이들에게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는 식의 명령을 내리고 말을 듣지 않는 아이에게는 매를 들어서 가르치고, 또 아이가 크면 문예와 체육 교육을 통해서 덕을 함양시키고, 사회에 나가면 법이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19] 형벌제도가 곧 덕을 가르쳐서 함양할 수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에 따르면 덕은 타고나는 것도, 저절로 갖추어지는 것도 아니며,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삶에서 가장 긴요한 배워야만 하는 것이다.[20]

이때 학생이 덕을 습득하기 위해서 프로타고라스에게 "배울 거리란 잘 숙고하는 것"이다(318e).[21] 숙고가 깊이 사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말은 사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의미다. 깊이 궁리하고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방법은 보편적이지 않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덕은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칠 때 점으로 글자모양을 그려 강제로 따라 그리듯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326d 참조)[22], 가장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덕은 다른 이들에게 전수해 줄 수 없다. 예를 들어 아테네의 전성기를 이끈 위대한 정치가인 페리클레스는 교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야는 교사에게 맡겼지만, 자신의 지혜로운 분야는 교육시키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맡기지도 않았다(319e-320a).[23] 그것

---

19 Platon 저, 강성훈 역(2011), 위의 책, 37쪽.
20 플라톤 저, 최호연 편역, 『프로타고라스/메논』(두로, 1997), 52쪽 참조.
21 Platon 저, 강성훈 역(2011), 앞의 책, 84쪽.
22 Platon 저, 강성훈 역(2011), 앞의 책, 94쪽.
23 Platon 저, 강성훈 역(2011), 앞의 책, 84-85쪽.

은 덕을 전수해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르쳐줄 수 있었다면 페리클레스의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겠지만 사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관중을 제나라의 명재상으로 만든 포숙아의 탁월한 인품도 자식이나 손자에게는 전수되지 못했고, 세종대왕의 아들도 아버지의 덕을 이어받지 못했다. 선조는 퇴계, 율곡이라는 뛰어난 학자를 스승으로 두었음에도 덕을 갖추지 못했다. 이로 보아 덕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깊은 숙고와 깨달음을 통해 배워내야 하는 것 같다.

2) 인은 가르칠 수 있는가

유가철학에서 덕 못지않게 중요한 개념이 인(仁)이다. 위정자가 반드시 갖춰야할 덕목이 덕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할 덕목은 인이다. 인은 공동체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념이다. 공자는 인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며,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하루라도 인을 실천해서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천하가 모두 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구절은, 인의 실천주체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24] "하루라도"라는 말에서 인의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인의 실천방법은 "예가 아니면 보지도 않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않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않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않는" 것이다.[25] 이렇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행동방침이 있어도, 안회 정도만 인에 가까이 다가간 것을 보면 인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

24 『論語·顔淵』. "樊遲問仁, 子曰愛人." "顔淵問仁, 子曰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而由人乎哉." 참조.

25 『論語·顔淵』. "顔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고금의 철학자들이 꿈꾸는 이상은 어떻게 하면 지행합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AI에게 인을 실천하는 행동지침을 지시하면 어떻게 될까? 지시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면에서는 지행합일의 이상을 이루기에 AI가 인간보다 나을 것 같다. AI의 하드웨어는 인간의 육체와 전혀 다른 시스템이므로 소프트웨어에 입력된 지침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일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AI는 지침의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진위에 대한 판단 없이 명령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하다. 실행에 앞서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반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철학은 전통적으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의 행위기반인 '앎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사유해왔다.

성찰하고 반성하는 능력은 AI에게는 없고,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특별하고 고유한 능력이다. 인공지능은 주어진 명령을 제대로 실행할 뿐 실행근거인 앎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부과된 명령이 도출되기까지의 사유과정이 정당한지 아닌지, 전제조건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AI에게 반성적 성찰을 기대하기 어렵다. 바로 이 점이 AI와 인간의 차이점이다. 우리에게 반성과 성찰의 능력이 존재하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AI의 역할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시대에 사유력 강화는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사유력은 치열한 고민을 통해 강화되는 속성이 있는데 언지교는 사유력 강화보다 실천력을 끌어내는데 주력한다. 『논어』에서 제자들의 질문이 가장 많은 것은 효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공자의 대답은 질문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건강한 게 효이고, 나대는 사람에게는 나대지 않는 게 효이며, 성질이 불같은 사람에게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효다. 공자는 각자에게 부족한 면을 보완해줌으로써 효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양론이 발전했고, 그 덕분에 도덕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훌륭한 가르침은 좋은 사회적 기반이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실천력 확보에 앞서 효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가 전제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언지교가 안고 있는 결핍요소가 첫째 사유력 강화에 기여하지 못했고, 둘째 자율적 인간으로 성장하게끔 독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3) 사랑은 가르칠 수 있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고유하고 숭고한 특성은 덕과 사랑이다. 사랑과 덕이 전수되지 않는다면 문명이 번창하고 발달한다 해도 인류가 이룩한 정신문화는 좌초될 것이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하는 능력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사랑이 보고 배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르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의 사랑은 각자의 고유한 경험이고 체험이다. 그러므로 가르칠 수도 없고 훈련을 통해 성취할 수도 없다. 사랑의 능력을 습득하려면 '훈련', '정신집중', '인내'가 필요하다.[26] 정신집중은 사랑의 필수조건이다.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가 아기의 변화에 누구보다 민감할 수 있는 것은 정신이 온통 아기에게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어머니는 아기의 볼빛깔만으로도, 칭얼거림의 차이로도, 숨소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아기의 이상 증세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린다. 이처럼 아기에게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모성의 본능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다.

---

26 Erich Fromm 저, 황문수 역, 『사랑의 기술(*The Art of Loving*)』(문예출판사, 2013), pp. 147-153쪽.

인간 사회에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고 양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런 전통은 반드시 전수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은 "인간의 어떤 특성을 전수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27] 예수도 인간이 전통으로 삼아야 할 특성이 사랑이라고 보았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신법은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신의 명령이고 전통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모두 이 숭고한 가르침의 전통을 배워서 지키고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에 분쟁, 갈등, 불행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것은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해서인가? 에리히 프롬은 우리가 "지식을 가르치지만", "성숙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기에 "충분한 가르침"은 상실하고 있다고 한다.[28] 그럴까? 가르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르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 아닐까?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고 그렇게 가르칠 것이고, 스승 또한 제자들을 덕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고 그렇게 가르칠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는 가르침에 대한 내적 통찰,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충분한 가르침" 만으로는 사랑의 전통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랑', '덕', '인'이라는 좋은 가르침은 스스로 터득한 깨달음이 동반될 때 배워낼 수 있고 실천의 동력원이 될 수 있다. 덕과 사랑의 중요성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그것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터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공자 역시 말로 가르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고 배움[學]과 사유[思]가 병행될 때 학문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물에 갇힌 것처럼 배운 것에 갇혀버리게 되고,

---

27 Erich Fromm 저, 황문수 역(2013), 위의 책, 159쪽.
28 Erich Fromm 저, 황문수 역(2013), 위의 책, 158쪽.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것이다.[29] 언지교의 내용이 배우는 것이라면 그것을 숙고하고 생각하는 것은 불언지교의 영역이다. '배움과 사유', '언지교와 불언지교' 두 가지를 병행해야만 온전한 학문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반쪽짜리 학문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 공자의 생각인 것 같다. 언지교를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삼아, 말로 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통찰할 수 있어야 새로운 앎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유가 전통에서는 '학(學)'에 치우쳐 '사(思)'를 소홀히 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유를 강조하는 불언지교적 가르침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철학'과 '철학함', '학'과 '사', '언지교'와 '불언지교' 이 두 가지를 병행할 능력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고, AI는 '철학', '학', '언지교'만 습득할 수 있다. 이에 유가 문헌에 담겨 있을 불언지교적 요소들을 찾아내 '학'과 '사'를 병행하는 방법을 미래세대에게 전승하면 사유체계를 튼튼하게 해서 중심이 잡힌 인재로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불언지교의 덕

불언지교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이 유가의 교육관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보았으며, 공통적으로는 불언지교가 교육의 지평을 확장하고 제도화된 교육 시스템에서 빚어지는 병폐를 해소해서 참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교육철학이라는 전제하에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장자의 불언지교를 마음의 문제로 접근한 이성미의

29 『論語·爲政』. "子曰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논문과 불언지교의 논리구조를 분석한 원용준의 논문은 접근 방식이 달라 신선하고 인상적이었다.[30] 이 장에서는 『도덕경』과 『장자』에 나타난 불언지교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형 인재육성 방법으로 발전시키기에 적합한지 분석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해본다. 불언지교는 도가의 핵심적 교육 방식임에도 『도덕경』(2장, 43장)과 『장자』(「덕충부」, 「지북유」)에 각각 한 번씩 총 4회 등장할 뿐이지만[31] 철학을 가르치지 않고 철학함에 눈뜨게 하는 교육방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1) 철학함에 눈뜨게 하는 방법

칸트가 '철학을 배우지 말고, 철학함을 배우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자기 이성을 스스로 사용함을 배운다는 뜻이다." "'철학한다'는 것은 단지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헌을 문자에 따라 연구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가 되는 사태를 관조하고 사색함을 말한다."[32] 문헌의 내용을 충실히 배우고 익혔다 해도 스스로 사유하는 능력을 배양하지 못하면 철학함을 배웠다고 할 수 없다. 사유하는 힘은 곰곰이 생각하고 터득해서

---

30 조민환, 「도가의 교육사상과 그 현대적의의」, 『동양철학연구』 32(2003); 조순영·임재택, 「노자 『도덕경』의 유아교육적 의미」, 『유아교육연구』 31(2011); 조순영, 「노자 도덕경을 통한 생태유아교육 교육관의 해석」, 『생태유아교육연구』 13(2014); 조한석, 「『노자』의 '불언지교'에 대한 교육 방법론적 재조명」, 『종교교육학연구』 25(2007); 이동기·정석환·정낙찬·권오륜, 「『道德經』에 나타난 아마추어리즘의敎育的 適用」, 『동아인문학』 40(2017). 배헌국, 「노자의 비교육의 교육」, 『교육철학』 39(2017). 이성미, 「『장자』를 통해 본 마음과 교육」, 『교육철학연구』 36(2014).

31 『道德經』 第2章. "是以聖人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第43章. "不言之敎, 無爲之益, 天下希及之."; 『莊子·德充符』. "立不敎, 坐不議. 虛而往, 實而歸. 固有不言之敎."; 『莊子·知北遊』. "夫知者不言, 言者不知, 故聖人行不言之敎." 같은 맥락에서 쓰인 '불언', '불언지변(不言之辯)', '불언지언(不言之言)' 등 유사한 단어들은 많이 발견되지만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32 백종현, 『철학의 주요 개념 1·2』(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29-30쪽.

스스로 배워낼 때 배양되는 것이지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깊이 연구한다고 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철학자가 어떤 말을 했고 그 의미는 어떠어떠하며, 그 이론은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자신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사유능력이 고양되지 않는다. 사유력은 어떤 사태에 대해서 스스로 사색하고 관조함을 통해서 습득되고 배양된다. 철학과 동시에 철학함을 배워야만 학문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다. 나는 문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구하며 철학을 배우는 것은 언지교의 방식이고, 스스로 "사태를 관조하고 사색"하며 배우는 것은 불언지교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불언지교의 특성은 어떤 가르침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길을 묻는 자에게 가르침 대신 스스로 고민하고 탐구하며 자기 힘으로 찾게 만든다. 그런데 길을 찾으며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사유력이 확장되고 강화된다. 깊고 정련된 사유력의 소지자는 삶에서 드러나는 덕행이 질적으로 다르다. 자연의 존재법칙에서 배워내는 불언지교는 배울수록 깊어지고 넓어진다. 불언지교는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학생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고 깊이 통찰하게 함으로써 AI로 대체될 수 없는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을 갖게 한다. 스스로 사유하게 만듦으로써 전체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되고, 창조적 지식인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미래교육담론으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학생의 자발성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피교육자에 대한 장기적 관찰과 판단유보를 지향한다"[33]는 점에서는 그 적용과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개발하고 AI에게 종속되지 않고 AI를 활용할 줄 아는 인재로 키워내기에 시의적절한 방법인 것만은

33 조한석, 「『노자』의 '불언지교'에 대한 교육 방법론적 재조명」, 『종교교육학연구』 25(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참고.

분명해 보인다.

2) 노자의 불언지교

노자가 불언지교를 주장하는 배경은 『도덕경』 제25장의 도법자연(道法自然)사상이다. 자연은 한순간도 고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자연을 고정화하는 언어, 지식, 교육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도가의 기본적 입장이다.[34] 언어는 전체 세계의 진면목을 담아낼 수 없고, 하나의 관점에서 파악한 지식을 참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우지 않는 배움[學不學 64장]', '무위를 행함[為無為 63장]', '일 없는 일[事無事 63장]', '배우기를 끊어버리면 근심이 없다[絶學無憂 20장]', '성인의 이상을 끊어버리고 지혜를 버린다[絶聖棄智 19장]' 등은 모두 불언지교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개념들이다. 노자는 자연은 유사 이래 무위로써 무불위를 실현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 분명한데, 인간이 구성한 인위적인 지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지배력을 갖게 하는 것은 위태롭다는 것이다. "인간이 구성한 인위적인 지식"은 지배층으로 하여금 특권의식을 갖게 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 문명의 변화를 방해하고 정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자연은 유무상생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고 있고, 그 덕분에 이 세계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고 아름다움과 추함, 착함과 착하지 않음으로 가르고, 아름답고 착한 것은 좋아하고, 추하고 착하지 않은 것은 싫어하고 배척한다.[35] 세계를 미추선악시비판으로 판단하는 분별적 사고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갖게 하고 부분에 함몰되게 해서 하나의 관점에서만 세계를 바라보는 위험성이 있다. 도가가

---

34 조민환, 「도가의 교육사상과 그 현대적의의」, 『동양철학연구』 32(2003) 참조.
35 『道德經』 第2章.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 참조.

보기에 '아름답다', '추하다'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일 뿐 아름다움과 추함은 실재하지 않는다. 아름다움과 추함, 기쁨과 노함, 착함과 착하지 않음, 옳고 그름은 뿌리[根]가 같고 들고나는 문(門)이 같다.[36] 모든 것이 하나에 뿌리를 두고 있고 거기서 나와 거기로 돌아가건만, 세상 사람들은 전체 과정을 보지 못한 채 한 시점에만 매몰되어 미추를 평가하고 판단한다. 도가의 성인은 사물과 현상의 배후에 작동하고 있는 원리를 알고 있기에 무위지사에 처하고 불언지교를 행한다.[37]

사람은 무슨 일이든 인정받고 공치사하고 싶어하지만 자연은 '공성이불거(功成而弗居)'의 원칙에 따라 모든 공을 뒤로 한 채 묵묵히 자기 길을 간다. "만물이 거기서 만들어지지만 말하지 않고, 낳지만 소유하지 않고, 행하지만 뽐내지 않는다. 공이 이루어져도 머무르지 않는다."[38] 이를 보고 성인은 '공을 자기에게 돌리면 공이 오래 갈 수 없다'[39]는 사실을 깨닫는다. 성인이 이처럼 자연의 법칙에서 인간의 행위원칙을 연역하는 것은 『도덕경』에서 '시이(是以)'라는 연결사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40]

불언지교의 근원은 자연의 무위형식이다. 자연은 무위하는 가운데 무불위라는 극대화된 효과를 거두고, 무위이무불위는 유무상생이라는 법칙의 결과다. 유무상생은 이 세계의 변치 않는 항상된 법칙이다. 인간은 지혜를 추구하고 습득하기 위해 애써 배우고 익히지만, 자연세계에는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가르침도 배움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위로 유지되는 자연세계에 인위가 개입되면 자연의 상도는 손상되고, 자연의

---

36 『道德經』第2章 [王弼註]. "美者, 人心之所進樂也. 惡者, 人心之所惡疾也. 美惡猶喜怒也. 善不善猶是非也. 喜怒同根, 是非同門" 참조.

37 『道德經』第2章. "是以聖人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38 『道德經』第2章. "萬物作焉而不辭, 生而不有, 爲而不恃, 功成而弗居."

39 『道德經』第2章 [王弼註]. "使功在已, 則功不可久也."

40 '시이(是以)'의 해법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엮음, 『생태문명 생각하기: 내 삶을 바꾸는 환경철학』(크레파스북, 2018), 71-97쪽.

도가 훼손되면 우주자연의 생명력이 위태로워지지만 자연의 법칙에 따라 무위하면 그 결과 무불위의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 노자의 생각이다.

도가 철학에서 성인이 거두는 불언지교의 효과는 무위, 무사(無事), 무욕(無欲)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아 백성들에게서 자율성을 끌어내고 자발성을 고양시켜 백성들 각자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끔 돕는 것이다. 성인의 무위는 백성의 '자화(自化)', '자생(自生)', '자빈(自賓)', '자균(自均)', '자정(自定)', '자정(自正)', '자부(自富)', '자박(自樸)', '자지(自知)', '자견(自見)', '자유(自遺)', '자애(自愛)', '자귀(自貴)', '불소이자래(不召而自來)', '처하즉물자귀(處下則物自歸)'라는 정치적 성공으로 이어진다.[41] "주체가 '무위'하면 그 결과로 객체가 자신에 내재된 힘을 발휘하여 모든 일을 성취해낸다."[42] 성인의 무위가 백성에게서 무불위라는 결과를 낳는 것처럼 불언지교라는 무언의 가르침이 학생에게서 무불위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불언지교의 효과와 무위의 유익함을 아는 자는 드물다"는 것이다.[43]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도가의 도는 AI가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자연성이 발휘되는 공간이며, 불언지교가 아니면 전승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무위의 유익함은 유약성에서 시작된다. 『도덕경』 43장에서 무위의 유익함은 바로 무불위이고, 무위의 시작은 불언지교다.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지극이 견고한 것을 부린다. […] 나는 이것으로 무위의 유익함을 알지만 불언지교와 무위의 유익함이 천하에 미치기는 매우 어렵다."[44] 무위의 유익함이 천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불언지교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

41 박혜순, 「수평사회를 지향하는 聖人의 自의 연구」, 『생명연구』 제51집(2019) 참조.
42 원용준, 「도가의 교육론과 그 윤리교육적 의의」, 『동양문화연구』 14(2013), 81쪽.
43 『道德經』 第43章. "不言之敎, 無爲之益, 天下希及之."
44 『道德經』 第43章. "天下之至柔, 馳騁天下之至堅. […] 吾是以知無爲之有益. 不言之敎, 無爲之益, 天下希及之."

인위를 학습한 사람들은 무위의 유익함을 알지 못하고 긍정하지 않는데 『도덕경』 17장에서 태상은 무위의 유익함을 멋지게 실현해 보인다. 태상이 무위함에도 백성들은 스스로 알아서 행하고 이로써 "저절로 부유해지고[自富], 저절로 교화되고[自化], 저절로 안정되며[自定], 저절로 바르게 되어[自正], 저절로 균등[自均]"해지는 사회가 구현된다.[45] 결론적으로 태상의 정치적 성공비결은 무위와 불언지교에 있다. 인위를 학습한 다른 통치자들은 착함을 세워 시행하거나, 권위에 의존하거나, 명령으로 다스리는데 그 정치적 효과는 모두 태상만 못하다. 이들은 왜 무위하지 못한 것일까? 무위는 가르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발성과 자연스러움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속성은 때에 맞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기가 걸음마를 떼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 속성이다. 아기는 가르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스스로 엎치고 일어나 앉다가 어느 날 문득 일어서 걸음마를 시도한다. 일어서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걷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끝내 혼자 걸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어른은 아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거나 일으켜줄 수 있을 뿐 걷는 것은 결국 아기 혼자 해낸다. 아기는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터득하며 어른이 된다. 아기 새도 어미의 날갯짓을 보고 스스로 배워낸다. 자연적 존재자들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적 속성은 모두 불언지교의 영역에 속하지 가르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연적 속성, 자발성은 인간에게는 있고 AI에게는 없다. 불언지교는 인간에게서 자연적 속성인 무위를 되살려내고 무불위에 도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무불위의 전제조건은 무위지 인위가 아니다. 도의 세계에서는 가치의

45 박혜순(2019), 앞의 논문, 76쪽.

우열 개념이 존재하지 않다. 그런데 특정가치를 강조하면 다른 가치는 주변부로 밀려나고 중심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배가시키는데 기여할 뿐이다. 특정 가치를 중심으로 건립된 이런 사회는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 불언지교는 '절성기지(絶聖棄智)', '절인기의(絶仁棄義)', '절교기리(絶巧棄利)', '절학무우(絶學爲憂)'라는 언명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다. 성인의 이상을 끊어버리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들의 이익이 백배가 되고, 인을 끊어버리고 의를 버리면 백성들이 효성과 자애를 회복하게 된다. 교묘한 재주와 이익을 버려야 도적이 없는 세상이 된다. 배우기를 끊어버려야 근심이 사라진다.[46] '성인의 이상과 지혜', '인의', '효와 자애', '기교와 이로움'은 모두 유가의 이상적 가치들이며 '학(學)'을 통해 전승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그것을 끊어버릴 때 비로소 백성들의 이익이 증대되고, 가정의 화목이 유지되며, 도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행복한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노자의 주장을 수용하면 불언지교는 가치중심적인 세계관과 결별하고 자연의 법도를 따르는 소박하고 단순한 삶으로의 출발점이 된다. 노자는 백성들의 이익이 축소되고, 효성과 자애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적이 들끓는 혼란스런 세상이 야기된 것은 바로 언지교의 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폐단을 수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 교육이론이 불언지교다.

자연적 속성에 기초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덕을 교육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일어난다. "도를 잃은 뒤에야 덕을 강조하게 되고, 덕을 잃은 뒤에야 인을 중시하게 되고, 인을 잃은 뒤에야 의를 강조하고, 의를 잃은 뒤에야 예를 중시하게 되니, 무릇 예란 충성과 신의가 얄팍해져 혼란이 야기되는 시초이다."[47] 덕을 강조하다 오히려 의도치 않은 혼란이 가중되므로 인간의

---

46 『道德經』第19章. "絶聖棄智, 民利百倍, 絶仁棄義, 民復孝慈. 絶巧棄利, 盜賊無有."; 第20章. "絶學爲憂."

47 『道德經』第38章. "失道而後德, 失德而後仁, 失仁而後義, 失義而後禮, 夫禮者, 忠信之薄而

자연적 속성을 강화하려면 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마음 속에서 도가 살아나면 인의예지 사덕은 저절로 실현될 것이다. 따라서 가르침의 내용을 확장하기보다 자연의 도로 복귀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라는 것이다. 가치중심적인 가르침을 버리고 각자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배워내는 것이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사유 속에서 도출된 교육이론이 노자의 불언지교다.

3) 장자의 불언지교

장자철학에서 사유의 지평 확장은 하나의 관점을 버리고 이도관지(以道觀之)하는 것이다. 전체의 중심인 도추(道樞)에 설 때 사물과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도추의 경지에 진입하는 방법은 "사태를 관조하고 사색"하며 배워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덕충부」의 왕태는 죄를 지어 발이 잘린 사람인데 깨달음을 얻어 그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다. 그는 육체조차 가상의 것으로 여겨 며칠 묵어가는 객사(客舍)로 여기고, 발이 잘려나간 것쯤은 흙덩이가 떨어져나간 것으로 생각하며,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데도 뭇사람이 와서 보고 배우고 충만해진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 일화는 무언의 가르침에서 얻는 힘과 감동이 그 무엇보다 사람을 크게 변화시키고,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닌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48] 이처럼 불언지교의 특성은 가르치는 자는 없는데 각자 필요한 것을 찾아서 배워내고, 이것이 자기 성장과 성숙에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지북유」의 지(知), 무위위(無爲謂), 광굴(狂屈) 그리고 황제(皇帝)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지(知)는 분별지로 세상과 사물을 이해하고 아는

亂之首."

48 이성미, 「『장자』를 통해 본 마음과 교육」, 『교육철학연구』 36(2014).

자이다. 그는 도를 알고(知道), 도에 편안하고(安道), 도를 얻는 방법(得道)을 알고자 '무엇을 사려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며,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세 사람을 찾아간다. 반응은 각기 다르다. 가장 먼저 찾아간 무위위(無爲謂)는 묵묵부답 답이 없다. 답하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답을 알지도 못한다.[49] 그는 인간 인식의 한계를 벗어난 방외지사(方外之士)이기 때문이다. 답은 부분적 관점에서 속단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지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체를 통찰하고 조망하는 자가 보기에 부분에 갇힌 답은 도가 아니다.

다음 광굴은 답을 말해줄 것 같았지만 이내 말하려던 바를 잊어버렸다.[50] 그는 방외(方外) 방내(方內)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적 존재자로 분별지를 털어버리고 인식의 강을 건너 망각의 단계에 이르러 이제 막 도의 경지로 들어서는 중이다. 방법적으로는 도에 근접했지만 아직 도를 터득하진 못한 상태다.[51]

마지막으로 만난 황제는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준다. "사려하지 않아야 비로소 도를 알 수 있고, 처신과 일에 신경쓰지 말아야 도에 편안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일부러 따르려 하지 않아야 비로소 도를 얻을 수 있다."[52] 황제는 무위위의 대척점에 서있는 방내지사(方內之士)다. 재미있는

---

49 『莊子·知北遊』. "知謂無為謂曰, 予欲有問乎若, 何思何慮則知道? 何處何服則安道？ 何從何道則得道? 三問而無為謂不答也, 非不答, 不知答也." 林自의 주해에 따르면 무위위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無爲無謂者 道也) 것이다.

50 『莊子·知北遊』. "知以之言也問乎狂屈. 狂屈曰, 唉! 予知之, 將語若, 中欲言而忘其所欲言."

51 『莊子·大宗師』. "吾猶守而告之, 參日而後能外天下, 已外天下矣, 吾又守之, 七日而後能外物, 已外物矣, 吾又守之, 九日而後能外生, 已外生矣, 而後能朝徹, 朝徹, 而後能見獨, 見獨, 而後能無古今, 無古今, 而後能入於不死不生." 「대종사」편에서 복량의가 도를 깨치고 불사불생의 단계로 들어가는 방법의 첫 단계는 망각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바람. 박혜순, 「삶과 죽음 그리고 자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 『생명연구』 제47집(2018).

52 『莊子·知北遊』. "黃帝曰, 無思無慮始知道, 無處無服始安道, 無從無道始得道."

것은 그의 가르침인 "무사무려(無思無慮)", "무처무복(無處無服)", "무종무도(無從無道)"에 인위를 경계하는 분명한 태도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학문을 하는 것과 도를 닦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므로 인식지, 분별지, 구별지, 구분지에 갇혀 있는 한 도에 근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53] 세 사람 모두 도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을 전하는 방식이다. 무위위는 불언지교를 행하고, 황제는 언지교를 행하고, 광굴은 언지교에서 불언지교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무위위가 터득한 도는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무위위와 광굴은 인식 범위의 바깥에서 세계의 진면목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앎은 전체지, 총괄지, 비분별지, 비구분지, 비구별지다. 인식의 범위 내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로써 가르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므로, 불언지교가 아니면 전할 수 없다.[54] 황제처럼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다면 도를 터득하고 도로 복귀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불언지교의 스승들은 무위위나 광굴처럼 하나같이 불친절하기 이를 데 없다. 각자 필요에 따라 알아서 배워내라는 식이다. 게다가 보편적인 방법론이 개발되지도 않았으니 배우고 싶어도 배워낼 수가 없다. 강제적인 가르침을 행하지 않고 스스로 배워내게 함으로써 각자의 자발성을 존중한다는 점은 불언지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도가의 주장대로 가르침의 기준을 없애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인간에게 가치와 전통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사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더구나 특별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불언지교가 무위무불위의 전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면 허황되고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장자』의 성인은 만물의 변화가

---

53 『莊子·知北遊』. "予與若終不近也, 以其知之也."

54 『莊子·知北遊』. "黃帝曰, 彼無為謂真是也, 狂屈似之, 我與汝終不近也."

기의 운행 작용임을 터득하고 참된 가르침은 불언지교로 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Ⅳ. 대안적 제언: 언지교와 불언지교의 융합

불언지교는 특수한 방법일 뿐 보편적이지 않다. 언지교가 아니라면 도에 대해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언지교는 인간 인식 체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질서 수립, 문물제도 정비, 세련된 문명 구축은 모두 언지교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언지교의 공헌은 여기까지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 모든 정보는 AI가 관장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라도 간단한 터치만으로 필요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동의하든 안 하든, 지지하든 않든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언지교와 불언지교의 융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언지교는 데이터화가 가능하다. 요즘 AI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대량의 빅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상상의 영역까지 인간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정확한 결괏값을 내놓음으로써 인간과의 경쟁을 불허한다. 그러므로 언지교의 영역은 AI에게 맡기고 인간은 AI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AI는 깨달음을 얻고 도를 터득하는 불언지교의 영역에 도전할 수 없다.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불언지교의 내용은 데이터화할 수 없고 학습모

델을 제시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미래형 인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은 창의성이다. 평가중심의 견고한 교육시스템에서는 유연한 사고력을 끌어내기 어렵다. 창의성은 유연한 사고에서 나오는 법이지 견고한 사고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학습의 주도권을 학생 각자에게 이양하는 불언지교로 보완하면 '유연성의 확보', '자유로운 발상', '무한한 도전정신 계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축적된 지식의 전승과 전달에는 언지교가 확실히 효과적이지만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이며 자발성과 자율성을 갖춘 인재양성에는 불언지교가 더 바람직하다. 언지교가 역사적 전통 속에서 습득한 경험지식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불언지교는 현상의 배후에 깔린 형이상학적 원리를 추적하고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써 세계의 전체적인 면모를 조망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인재배출에 더 효과적이다. 언지교의 경험적 지식과 불언지교의 창조적 깨달음의 방식을 결합하고 융합하면 미래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 창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불언지교라고 해서 스승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직접적인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르치지 않으므로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고, 시도해보는 기회가 많아지고, 이 과정에서 호기심이 고취되고, 사유역량이 극대화되면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세계로 진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말로 할 수 없고 개념화되지 않는 도가의 도는 개념화된 모든 분별적 지식을 다 비운 허심의 상태라야 불언지교의 가르침에 접근할 수 있다. 허심의 상태란 자연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허심에 이르러야 무위할 수 있고, 무위의 가르침인 불언지교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은 빅데이터의 집적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AI에게는 불가능하다.

언지교를 통해 배우고 익혀온 분별지, 구별지, 도구지, 한정지와 사물과 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사유로 비분별적 지식을 창의적으로 연결하

고 융합함으로써 전체 조망력과 통찰력을 확보하고, 사건, 사물, 현상을 해석함에 부분과 현상에 매몰되지 않는 참다운 지혜를 터득할 때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불언지교로 자율성이 확대되고 사고방식이 유연해지면 이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배우지 않는 배움[學不學, 『도덕경』 64장]'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최근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답 찾기를 폐지하고 학생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IB교육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시대적 변화로 말미암아 미래형 교육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학습경험의 조력자로서 학생들이 미래에 갖춰야 할 소양을 통찰력 있게 파악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이다. 미래 교육이 요구하는 것은 정형화된 교육의 틀을 벗어나 삶 전체가 학습과 일체된 모습이다.[55]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IB교육이나 AP학습과 같은 미래형 교육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강의실이나 캠퍼스도 없는 혁신적인 학교가 각광받고 있다.[56] 이런 교육 지형 변화에 불언지교가 결합되면 목표 지향적인 경쟁적 사유가 가지고 있는 맹점과 한계를 보완하고 학생 각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일깨워주는데 일조함으로써 교육의 혁신적 변화와 전환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I가 언지교의 영역을 담당하고, 교사는 불언지교를 담당함으로써

55 최혜원,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교육은? 미래교육 실천이 답이다」, 《ScienceTimes》, 2018년 6월 27일자 참조.

56 EBS 다큐프라임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대혁명〉 2부 평가의 틀을 깨라」, 2017년 9월 19일 21:50 방송 참조.

인간과 AI의 협조체제를 이뤄 인간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고 동시에 자연적 본성을 유지 보전하는 것이다.

불언지교를 교육적 대안의 하나로 채택하면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만족도가 높은 학습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고, 창의적이고 고도의 사고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큰 힘을 발휘할 것이며, 이렇게 성장한 학생들이 21세기의 주역이 된다면 인류는 또 다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역사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나는 불언지교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혁의 시기에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의 기반 사유로 채택하기에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道德經』, 『莊子』, 『尙書』, 『大學章句』, 『論語』.

古漢語常用字字典編寫組 編, 『古漢語常用字字典』. 1998年版, 北京: 商務印書館, 1998.

谷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北京: 華夏出版社, 2003.

嚴靈峰 編, 『王注老子道德經』(日本刊). 臺北: 藝文印書館, 民國53[1964].

王力 主編, 『古代漢語』 校訂重排本 第一冊~四冊. 北京: 中華書局, 1999.

原編者王力等, 『古漢語常用字字典』 第4版. 北京: 商務印書館, 2005.

陳鼓應 註譯, 王雲五 主編, 『老子今註今譯: 及評介』.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77[1988].

焦竑弱侯 輯, 『老子翼; 莊子翼』. 東京: 富山房, 1974.

焦竑弱侯, 『도덕경 강의』. 국학자료원, 1996.

2. 단행본

백종현, 『철학의 주요 개념 1·2』.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빅토르 위고 저, 백연주 역, 『웃는 남자』. 더클래식, 2018.

최진석,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제2장. 소나무, 2001.

플라톤 저, 최호연 편역, 『프로타고라스/메논』. 두로, 199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엮음, 『생태문명 생각하기: 내 삶을 바꾸는 환경철학』. 크레파스북, 2018.

한나 아렌트 저, 김선욱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2017.

Carl Sagan, Billions and Billions 저, 김한영 역, 『에필로그』. 사이언스북스, 2004.

Daniel Bell 저, 김원동·박형신 역, 『탈산업시대의 도래(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아카넷, 2006.

Erich Fromm 저, 황문수 역, 『사랑의 기술(The Art of Loving)』. 문예출판사, 2013.

Karl Jaspers 저, 백승균 역, 『역사의 기원과 목표』.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6.

Karl Raimund Popper 저, 이한구 역, 『열린사회와 그 적들 1(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민음사, 2013.

Platon, Protagoras 저, 강성훈 역, 『프로타고라스』(정암학당 플라톤 전집). 이제이북스, 2011.

3. 논문

박혜순,『도가의 관점에서 본 물에 관한 생태 철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_____,「삶과 죽음 그리고 자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생명연구』제47집, 2018, 1-46쪽.

_____,「수평사회를 지향하는 聖人의 自의 연구」.『생명연구』제51집, 2019, 57-80쪽.

배헌국,「노자의 비교육의 교육」.『교육철학』39, 2017, 99-130쪽.

원용준,「도가의 교육론과 그 윤리교육적 의의」.『동양문화연구』14, 2013, 69-99쪽.

이성미,「『장자』를 통해 본 마음과 교육」.『교육철학연구』36, 2014, 73-98쪽.

_____,「양자 물리학의 확률적 세계와 장자의 안명무위(安命無爲)」.『교육철학연구』38, 2016, 121-143쪽.

조민환,「도가의 교육사상과 그 현대적의의」.『동양철학연구』32, 2003, 207-227쪽.

조순영,「노자 도덕경을 통한 생태유아교육 교육관의 해석」.『생태유아교육연구』13, 2014, 1-19쪽.

조순영·임재택,「노자『도덕경』의 유아교육적 의미」.『유아교육연구』31, 2011, 137-154쪽.

조한석,「『노자』의 '불언지교'에 대한 교육 방법론적 재조명」.『종교교육학연구』25, 2007, 47-63쪽.

4. 기타

김진숙,「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역할」.《에듀인뉴스》, 2016년 8월 9일.

이강봉 편집위원,「게임으로 학생 능력 평가한다: 미 교육계, 시험방식 개선 위해 '스텔스 평가' 실험」.《ScienceTimes》, 2011년 2월 9일.

최혜원,「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교육은? 미래교육 실천이 답이다」.《ScienceTimes》, 2018년 6월 27일.

EBS 다큐프라임,「〈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대혁명〉 2부 평가의 틀을 깨라」. 2017년 9월 19일 21:50 방송.

국문초록

인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제2의 기축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이러한 발전이 인류에게 도움이 될지는 아직 의문이다. 3차 산업까지 이 세계의 중심축은 인간이었지만 이제 AI가 그 자리를 대체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에서 불언지교가 철학 본연의 임무인 '고도의 사유력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인간의 현좌표는 자연과 AI의 중간지점이고, 이들 셋은 각기 다른 법칙에 따라 존재하거나 작동한다. 자연은 무위의 법칙에 따라 운행되고, AI는 인위의 법칙에 따라 작동되며, 중간적 존재자인 인간은 양쪽 법칙 모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지식 전달방식에서 '지능적 능력'인 인위의 법칙은 언지교로, '무위적 가르침'은 불언지교로 전승된다.

불언지교의 중요성은 인간의 존엄성 및 독특성을 유지하고 사유력을 강화하는 힘이 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AI에게는 접근불허의 영역이므로 4차 산업시대에 AI와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언지교가 지배적 지위를 장악하고 불언지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져 왔지만, 문명의 원동력인 학문을 온전하게 발전시키려면 언지교와 불언지교의 융합은 필수적이다. 이에 나는 미래변화에 대응방안의 하나로 인위와 무위, 언지교와 불언지교의 융합을 제안한다.

투고일 2021. 3. 21.
심사일 2021. 4. 28.
게재 확정일 2021. 5. 10.
주제어(keyword)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I(Artificial Intelligence), 불언지교(Wordless Teaching), 언지교(Teaching of Speech), 사유력 강화(Strengthen the Thinking Process)

Abstract

Methodology on Strengthening the Thinking Process: Wordless Teaching

Pakr, Hye-so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played a key role in the emergence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ventually contributed to the second Axial Age. However, whether this development has been entirely beneficial to humankind is questionable – AI, in the mean time, has put the humans at risk by replacing human intelligence as the maximized form of intelligence of all kinds.

Within the context of human existentialism, the current "coordinate" of humans is a median point of nature and AI, which are antipodes of each other. Nature runs on the law of doing nothing (for the sake of doing it), and AI is operated by the law of artificiality; additionally, artificiality continued progressing through 'teaching' whilst doing nothing (for the sake of doing it) stayed behind with 'wordless teaching'. Humans, due to its median nature, should ideally accept both the laws of doing anything (for the sake of doing it) and doing nothing (for the sake of doing it).

The importance of nature's wordless teaching lies in its versatile role for fulfilling humanity – it allows humans to maintain dignity as well as existential status, to strengthen cognitive ability, and to develop uniqueness. is required to complete the civilization. Despite its importance, humans have traditionally focused on developing intellectual capabilities and neglected wordless teaching. While this has caused a human existential crisis, there is a solution – the convergence of teaching and wordless teaching as an essential to advance the civilization. Therefore, I propose the convergence of doing nothing (for the sake of doing it) and doing nothing (for the sake of doing it) to secure competitiveness against AI and pursue human dignity in the 4th industrial era.